

## 이청준 소설 『흰옷』의 프랑스어 번역 *L'Harmonium*에 나타난 삭제 양상이 작품 미학에 미치는 영향\*

남 윤 지  
(한국외국어대)

###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저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청준 문학 수용에 대한 번역비평적 연구」의 일부분이다. 이청준 작품의 프랑스어 번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개인적 계기는 『흰옷』의 프랑스어 번역본 *L'Harmonium*에 나타난 원작을 ‘지우는’ 경향 때문이었다. 해당 번역에서 문화적 요소가 상당 부분 삭제되었고, 그 결과 이청준 고유의 소설 미학(분단 현실을 배경으로 매국놀이조와 버꾸농악풍으로 상징되는 반목과 상처가 씻김굿이라는 위령제를 통해 승화되는

과정)이 왜곡되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기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첫 단계로 한국어 원전 『흰옷』과 프랑스어 번역본 *L'Harmonium* (번역서 제목의 의미는 ‘풍금’)에 나타난 ‘변이(shift)’ 중에서도 ‘삭제’ 양상이 작품 미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물론 삭제가 번역의 고유 현상만은 아니다. 단일 언어-문화권 내 출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삭제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의 ‘출세작’인 소설집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Love*)』은 편집자 고든 리시(Gordon Lish)가 작가의 원고를 수록 단편별로 평균 40~60% 도려내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재창조한 책이다. 카버의 반발에도 대대적으로 수정된 편집본(1981)이 출간되었다. 작가 사후에 그의 미망인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작가의 원고를 모아 『풋내기들(*Beginners*)』을 출간(2009)했고, 국내에도 원전이 번역 출판되었는데, 작가 원고와 편집본 사이에 서사적 전개, 세계관, 주제, 결론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화제가 됐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많은 독자가 카버의 작품집으로 알고 읽어왔으며, 여러 작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해마지않던 편집본을 폐기해야 할까? 카버의 아내는 “나의 관심은 두 버전 중 무엇이 더 나은지를 비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책과 세 번째 소설집 ‘대성당’ 사이를 잇는 결합조직과도 같은 오리지널 버전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데 있다”(박선영 2015: 18)고 밝혔다. 작가가 용납하지 못한 편집본을 부정하기보다는, 두 판본이 갖는 문학사적·사회문화적 함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청준 소설 『흰옷』의 프랑스어 번역서를 통해 삭제가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미학적 변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번역에서 무엇이 지워졌으며 그 삭제 양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원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래할 번역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582).

아울러 본고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가 <AI 시대의 문학번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8 ITRI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심화·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2. 이론적 배경

### 2.1 선행 연구 - 번역에서의 삭제 전략

근대 번역사 연구나 문학번역 평가에 있어서 ‘삭제’는 빠지지 않는 분석 요소 중 하나이다. 한국의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에 큰 획을 남긴 김병철(1980; 김옥동 2010: 286 재인용)은 서양문학 수용 초기 국내 번역자들의 번역 방식을 세분화(번안, 역술, 축역, 선역, 발췌역, 의역, 초역, 연역, 초역술, 의역술, 경계역, 축자역, 중역, 완역, 직역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뒤이어 김옥동(2010)은 번역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한 축으로 ‘어떻게 번역하였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며, 김병철의 용어를 차용하면서도 그 개념을 더 명확히 정립하고자 했다. 특히, 번역의 양적 개념에 기반해 초역, 축역, 경계역을 엄격히 구분하길 제안했다. 김옥동(2010: 293-297)에 따르면, 초역(selective translation)은 ‘원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옮기는 번역 형식’으로 전역(全譯)의 반대말이며, 축역(abridged translation)은 ‘결 플롯의 사건이나 내용을 생략하고 중심 플롯’을 번역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문이나 원작 전체를 줄여서 번역’하는 것이고, 경계역(summarized/condensed translation)은 ‘원문의 전체 내용을 대강 알 수 있도록’ 요점만 혹은 줄거리만 ‘간략하게 간추려 옮기는 번역 방법’이다. 축역·초역·경계역의 경우 삭제가 대대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중역과 함께 당시의 지배적인 번역 형식이었다.

평가적 측면에서는 삭제가 연구 대상 번역본 선별 및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2005: 19, 23)은 영미명작의 ‘좋은 번역’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삭제가 일어난 ‘축약본’은 검토 대상 판본에서 아예 제외하였고, 선정된 판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외에도 ‘문장 차원의 누락’(특별한 이유 없는 문장/문단의 누락과 역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여겨지는 누락을 구분)과 ‘변용의 적절성’(번역자가 원문을 임의로 축약)을 고려하였다. 고려대 번역과레토릭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수행한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사업(2008-2011)에서도 토대평가의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로 ‘누락 오류’(자의적인 어휘·구·절·문장 누락 오류)를 꼽았다(이영훈 외 2011: 286).

문학번역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 번역 연구에서도 삭제 양상을 부분적으로 다뤄오긴 했으나, 국내 번역학 내에서 삭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박윤철(2008)은 영화의 자막 번역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략이나 삭제 현상들을 언어적 관점에서 두 작품 『노팅힐(*Notting Hill*)』과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Must Love Dogs*)』의 영-한 번역 사례를 코퍼스 삼아 분석하였다. 문자로만 구성된 텍스트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다양한 시청각적 기호가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창출하는데다, 자막이 갖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문헌 번역에 비해 더 다양하고 잦은 생략과 삭제가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정나영(2017)은 KBS 월드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TV 뉴스의 트랜스크리에이션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TV 뉴스 번역의 경우 영화처럼 다중모드(multimodality) 텍스트의 성격을 가지지만 원천 텍스트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영상을 취사선택하고 보도문을 번역·작성·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방송되는데, 그로 인해 첨가와 삭제가 일어나는 특수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최근 연구 중 문학 번역의 경우, 이지민(2018)이 한강의 3부작 중편집 『채식주의자』의 영역본 *The Vegetarian*에 나타난 삭제의 양상과 효과를 소설의 구조적 측면에서 논의한 연구가 있다. 인물, 플롯, 배경 등을 중심으로 소설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삭제 전략(문화적 관용어나 반복적인 구문 회피, 플롯의 단순화, 인물의 평면화, 꿈과 현실의 명료한 구분 등)을 밝혀냈다. 특히 연구방법에 있어서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스캔하고 워드문서로 변환한 후 보완작업을 거쳐 엑셀로 옮긴 후 원문과 번역문을 문장 별로 연결하여 엄밀하게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자면, 번역사(史)나 코퍼스 분석 연구에서는 삭제를 기술론적(descriptive)으로 다루고, 번역 평가에서는 삭제를 처방적(prescriptive)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양자의 경우 모두 규범(norm)이 개입하게 되는데<sup>1)</sup>, 기술론적 접근에서는 번역자의 의사결정 행위 근처에 어떤 규범이 작용하는가를 가설로 밝히는 데 초점이 있고, 처방론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를 규범으로 확립하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DTS)의 대표적 연구자인 투리(Toury, 2012)는 원천 텍스트

1) 체스터먼(Chesterman 1997: 52-53)은 ‘norm’에서 파생된 용어 ‘normative’의 중의적 성격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경고하며, ‘normative’를 ‘prescriptive’와 엄밀히 구분하고자 했다.

(source text, ST)와 목표 텍스트(target text, TT)를 양방향으로(ST ⇒ TT, TT ⇒ ST) 매핑(mapping)하여 어떤 변이(shift)가 일어났나 보고, ST와 TT 사이에서 서로 대응하는 쌍쌍을 짝지어(the coupled pairs of replacing + replaced segments) 그 관계를 규명하고, ST의 수용 언어-문화-사회 시스템 내 지위, 번역전략, 작용 규범 등을 추론 및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ST의 수용 가능성에 방점이 찍힌 ‘삭제’라는 번역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술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2.2 개념 정의 - 생략과 삭제의 구분

‘삭제’라고 하면 자못 자명해보일 수 있다. 그렇기에 별도의 개념적 정의 없이 ‘삭제’를 언급하는 연구가 그간 많았다. 하지만 번역에서 특정 요소가 삭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선행연구를 소개한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누락’, ‘생략’, ‘삭제’의 세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차별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 ‘삭제’는 일단 의도성이 전제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반면 번역자가 의도치 않게 실수로 빠뜨린 경우는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국어사전에서 표제어 ‘누락’의 뜻을 확인해보면, 기입되어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지거나 또는 그렇게 되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두 가지 행위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누락’의 개념을 첫 번째 의미로 제한하여, 의식적으로 특정 요소를 빼는

경우인 ‘생략’이나 ‘삭제’와 구분하고자 한다.<sup>3)</sup> 그렇다면 ‘생략’과 ‘삭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박윤철(2008: 173-175, 180)은 언어학의 화용론적 관점에서 ‘생략’은 ‘동일성 조건을 충족’하며 ‘복원 가능’하고 ‘발화 일부 요소에 적용’되며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가 사라진 경우로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삭제’로 분류한 후, 이를 영화 자막 번역 사례에 적용하여 ‘생략’은 ‘문장의 문법적, 구조적 측면에서 어떤 정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삭제’는 ‘원문 텍스트의 필수 요소나 문장 전체를 목표 텍스트에 나타내지 않은 현상’으로 ‘청자와 화자 간 공통 공유 정보를 근거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지 부담을 줄인다’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생략’과 ‘삭제’의 ‘경계선에 모호성’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2008: 191). 이에 대해 이지민(2018: 183)은 무엇이 ‘불필요한 정보’인가라는 가치 판단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난점이 있으며, 두 개념을 엄밀히 구분하기 힘든 탓에 문학 분석 연구에서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생략’과 ‘삭제’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지가 두 용어를 차별화하지 않고 사용하는 쪽을 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등가’의 관점에서 ‘생략’과 ‘삭제’를 정의하고자 한다. 번역의 해석이론(la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TIT)에서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학적 개념인 제유적 관계를 번역학적 개념으로 포섭하여,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외시적인 요소와 내포적인 요소 간의 관계가 언어별로 텍스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번역시 수용 언어-문화에 맞게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Lederer 1994: 216). 그 결과 언어적, 인지적 맥락에 따라 의미의 ‘명시화’ 혹은 ‘내포화’ 과정이 번역에 수반된다. ‘내포화’의 경우 단어 대 단어 차원을 비교하면 원문의 요소가 사라지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이는 사실상 등가적인 형식을 통해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등가에 해당한다<sup>4)</sup>. 본고에서는

2) 투리(Toury 2012: 79-85)는 (1) 기본적 규범(충분성, 수용성), (2) 선결적 규범(번역 정책, 번역의 직접성), (3) 실행적 규범(형체 규범, 텍스트-언어 규범)을 구분하였는데, ‘삭제’는 형체 규범과 관련이 있다. 투리는 DTS 방법론의 장점을 ‘은유’ 번역을 예를 들며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2012:107-110), 기존의 많은 학자들이 (1) 은유가 동일한 은유로 번역, (2) 은유가 다른 은유로 번역, (3) 은유가 비(非)은유적 표현으로 번역 되는 세 가지 경우에만 관심을 갖고, (4) 은유가 ‘0’으로 번역, 즉 ‘완전히 삭제된’, ‘목표 텍스트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경우는 무시하였는데 이는 번역에 대한 ‘처방론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보았다. 아울러 앞의 네 가지는 원천 텍스트의 은유를 ‘문제’로 간주하고 추론한 결과이고, 목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를 ‘해결책’으로 보고 관찰하면 (5) 비(非)은유적 표현이 은유로 번역, (6) ‘0’이 은유로 번역, 즉 원천 텍스트상 어떤 언어학적 동기도 없이 순전히 은유를 추가하는 경우까지 아우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3) 번역에서 특정 요소가 실수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는 번역자에게 직접 묻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는 참여자 중심 연구 방법(설문,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연구는 결과물 중심 연구 방법(DTS)에 기반하기에 ‘누락’ 여부를 단정 짓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긴 하지만, 삭제 양상이 작품 미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목표이므로(특히 대대적 삭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므로), 그 점이 연구에 큰 제약이 되지 않으리라 본다.

이처럼 등가적 관계에서 어떤 요소가 지워지는 것은 ‘생략’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삭제’로 간주하도록 하겠다.<sup>5)</sup> 이렇게 정의할 때 ‘생략’에 비해 ‘삭제’가 작품 미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매우 크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3. 분석 대상 및 방법

#### 3.1 원작 소설 및 번역서 소개

##### 3.1.1 원작 소설 - 이청준 『흰옷』(1994)

번역의 삭제 양상이 작품 미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 4) 뫼(Pym 2016: 220-232)은 슈라이버(Shreiber)의 분류를 기반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번역 해결책 유형을 제시하면서, ‘삭제’를 ‘내포화’와 다른 범주로 구분하였다. 뫼는 번역자가 별 고민 없이 명백한 해결책을 갖고 번역하는 ‘순항 모드(cruise mode)’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해결책이 가능해 보이는 ‘난항 모드(bump mode)’에 봉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세 가지로 대분류, 이를 다시 일곱 가지로 중분류, 스무 가지(확장 가능)로 소분류하였다. (1) 복제(copying: ① 단어 복제 ② 구조 복제), (2) 표현 변경(expression change: ③ 초점 변경 ④ 밀도 변경 ⑤ 보상 ⑥ 문화소), (3) 내용 변경(content change: ⑦ 텍스트 재단) 중에서 ‘내포화’는 일반화, 특수화, 명시화, 다중 번역 등과 함께 ‘밀도 변경(density change)’으로 분류했고, ‘삭제’는 추가, 수정, 검열 등과 함께 ‘텍스트 재단(text tailoring)’으로 간주했다.
- 5) 삭제에 대한 예는 뒤의 분석 결과 논의 과정에서 나오므로, 여기서는 생략의 예만 간략히 들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흰옷』에서 종선 씨가 자신이 다녔던 고향의 임시분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얘길 듣고 아들 동우에게 하는 말이다.

ST. 이 애비헌티 그 한 시절의 추억거리라도 없었다면, 일언이폐지하고 내 인생살이란 건 온통 불모의 사막 한가지였을 게란 말여.

TT. Sans le souvenir de ce bon temps, ma vie aurait été sans doute un vrai désert, mais ça !

번역에서 ‘이 애비헌티’란 표현은 빠졌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맥락상 누구의 추억에 대한 얘긴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온통 불모의 사막’은 ‘un vrai désert’ (진짜 사막)으로 대체되어 ‘온통 불모의’라는 단어는 지워졌지만, 종선 씨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온전히 전달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언어학적 차원에서 단어 대 단어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면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텍스트 차원에서는 의미의 등가가 이뤄졌다 볼 수 있다.

우선 원작 소설에 대한 개략적 이해가 필요하겠다.

소설 『흰옷』에서 이야기의 시작은 더덕 밭을 갈아엎고 있던 종선 씨를 아들 동우가 찾아오면서부터다. 동우는 교사가 되어 첫 부임지로 (전라)남도에도 있는 아버지의 고향 초등학교로 자청해 가지만, 늘 듣던 아버지의 임시분교 시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다. 종선 씨는 자신의 존재 근거인 유년시절이 부정되는 것에 저항해 옛 기억을 복원하려는 아들의 노력에 동참한다. 그 과정에서 해방 후 임시분교를 만들어 가르치던 마을 청년 방진모 선생, 정식 인가 받은 학교에 부임한 이열 교장과 여교사 전정옥, 젊고 순수한 열정으로 풍금을 연주하며 꿈이 가득한 노래를 가르치던 교장과 여선생이 좌우 이념 대립과 6·25 전란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빨치산이 되어 풍금을 갖고 산으로 도망쳤다는 풍문, 그 와중에 고초를 당하고 종적을 감춘 방 선생, 사라진 풍금의 행방이 그 궤적을 쫓는 아들 동우의 노력 덕에 밝혀진다. 이와 함께 종선 씨가 간직한 기억의 편린 속에 묻혀 있던 과거의 진실(선생들과 얽힌 이야기, 아버지 황 노인에게 대한 비화 등)이 드러난다. ‘여러 겹의 서사’가 ‘의문-추리-해명’의 세 단계로 구성되는 ‘내적 성찰’의 형식을 따라 이뤄지면서(정호웅 2003) ‘씻김굿’이라는 정점을 향해 나아간다. 대단원에서는 ‘제 삶의 아픔 끌어안기와 그 아픔 함께 아파하기, 혹은 대신 아파해주기’(이청준 1994)라는 해한의 정서가 위령제를 통해 구현된다.

김남혁(2015: 315)에 따르면, 1994년 대상문학상을 수상한 『흰옷』은 이청준 소설들 중에서 ‘변곡점 위에’ 놓여 있다. 『흰옷』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르는 대립적인 판단을 극복하는 거대한 화해의 의식’인 ‘씻김굿’으로 막을 내리면서, 다른 작품들에서 작가가 보여주는 ‘치열한 회의의 정신’은 사라지고 대신 ‘낙관적인 미래상’이 자리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윤옥(2005: 107, 134)은 ‘무엇을 통해 오늘의 구원’을 다루는 이청준의 세 작품을 비교하며, 『흰옷』(1994)은 『춤추는 사제』(1979)와 『신화를 삼킨 섬』(2003)과는 달리 거짓 화해에 대한 시도가 없음을 강조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흰옷』의 주요 소설미학이라 할 수 있다.

번역과 대조 비교할 원본으로는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한 소설의 최종본(2015)을 기준으로 삼았다. 출판 시기와 번역서 판권란을 보면 번역자는(공역자들은) 1994년 단행본을 저본으로 작업하였다. 이청준 작가의 『흰옷』이 처음 지

면에 발표된 것은 『문예중앙』 1993년 겨울호를 통해서며, 이듬해 열림원이 이를 단행본(1994)으로 처음 묶어냈고, 작가가 생존한 동안 처음 간행된 이청준 전집에 작품이 수록(2003, 열림원)되었다가, 작가가 작고한 후 출간된 두 번째 전집(2015, 문학과지성사)에 새롭게 실렸다.

〈표 1〉 원작의 출간 이력

이청준 『흰옷』	
발표	『문예중앙』 1993년 겨울호
최초의 단행본 수록	열림원, 1994
최초의 전집 수록	이청준 문학전집 11, 열림원, 2003
마지막 전집 수록	이청준 전집 26, 문학과지성사, 2015

이윤옥(2015: 300-301) 평론가가 정리한 자료 <텍스트의 변모와 상호 관계>에 따르면, 『흰옷』이 문예지에 발표(1993)된 후 이듬해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1994)는 본문이 변하지 않았고, 이를 이청준 문학전집으로 펴내면서는(2003) 작가가 작품을 새로이 수정 보완한 결과 단 4군데가 바뀌었다(표기법 변경에 따른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제외). 2군데는 수식어가 한 단어씩 사라지고, 2군데는 2~3줄 분량의 설명이나 대화가 삭제되었다.

작가 사후에 출간된 전집에 수록된 텍스트(2015)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L'Harmonium* (2001)과 비교할 원본으로는 최종 출판본(2015)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언급한 부분은 번역서와 비교시 고려하지 않았다.

〈표 2〉 원작 텍스트의 변모 내용

진짜 좌익인물이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뒷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였다. 노래에 대해서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고 고왔거나 아니면 ⇒ [삭제]
숨은 목적도 ⇒ 목적도
허물없이 일러왔다. ⇒ 일러왔다.
참나무골 윗갓골이라면 분명 종선씨가 어렸을 적 살았던 동네였다. 그러나 종선씨는 어스름타도 있었지만, 그 궁색스런 증늬는 이 행색 속에 기억에 떠오르는 얼굴이 전혀 없었다. / - 실은 그렇소만. 어린 한 시절엔 뒤편이. ⇒ [삭제]

### 3.1.2 프랑스어 번역서 - *L'Harmonium* (2001)

분석 대상은 『흰옷』의 프랑스어 번역본 *L'Harmonium* (2001)이다. 해당 번역서의 경우, 서지 정보만으로 번역가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결 텍스트를 자세히 확인해야 번역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책 표지를 보면 강거배(Kang Gobae)와 손미경(Son Mi-Kyung)이 공역자로, 속표지를 보면 파트릭 모뤼스(Patrick Maurus)가 책임 편집자로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서문을 보면, 파트릭 모뤼스는 강거배와 함께 번역을 시작했다가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강 교수와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는 번역자와 함께 작업하여 고인이 홀로 번역했다면 선택했으리라 싶은 형식으로 번역을 완수한 후 그의 이름을 함께 올렸으며, 최종적으로 번역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다른 두 사람(F. Gauthier, Cho Soo-mi)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 사람이 번역에 참여한 결과 누가 각각의 삭제 여부를 결정했는지 그 주체를 알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정황을 고려할 때 번역자이자 편집자인 모뤼스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결정했을 확률이 높다. 그 실질적 영향력 타인지 한국문학작품 프랑스어 번역 서지 목록 중에는 『흰옷』의 번역자로 모뤼스의 이름만 올린 것도 있다(김정연 2015: 180). 모뤼스는 *L'Harmonium*을 펴낸 프랑스 출판사 악트 쉬드(Actes Sud)의 한국문학 총서 책임편집장으로, 이청준과는 막역한 사이로 개인적 교감을 바탕으로 작가의 전집 번역 저작권을 확보하기까지 했다. 또한 1990년 첫 만남 이후 작가와 번역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청준은 번역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며 모든 것을 ‘번역가의 소관’으로 여기는 듯했다고 밝힌 바 있다(Maurus 2011: 16).

*L'Harmonium*에 실린 서문을 통해 모뤼스의 번역관을 알 수 있다. 그는 기존의 한국문학 번역 관행을 크게 비판하며, 문학작품은 모국어로만 번역해야 한다는 걸 이해 못하고 원어인 감수자를 그저 ‘필요약’ 정도로 생각하며, 민족주의적 사고에 젖어 국가 보조금 등을 앞세워 한국이 생각하는 ‘한국문학’을 프랑스 독자에게 강요해왔고, 그 결과 현지 독자를 멀어지게 하는 번역을 양산했다고 일갈한다(Yi 2001: 7-8; 남윤지 2016: 104 재인용). 또한 해당 번역서를 출간한 악트 쉬드 출판사가 펴낸 한국문학 번역서들의 저작권 페이지를 보면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해당 텍스트는 번역가들이 작가와의 협의 하에 작성’하

였으며, 프랑스어본은 ‘원본과 몇몇 점에서 차이라 난다’는 요지의 문구가 삽입돼 있다(남윤지 2016: 104). 이를 종합해 볼 때, 독자 친화적 관점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번역 전략을 세웠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 3.2 대조 분석 방법

대조 분석을 위해 저자는 세 차례에 걸쳐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여 삭제 목록을 정리했다. 일차 조사 결과, 삭제 방식 및 분량을 고려할 때 삭제 단위를 정하는 게 고민이었다. 파편화된 양상의 삭제 부분 또는 5페이지 이상 잘려나간 부분을 작은 단위로 과연 분할할 필요가 있는가가 관건이었다.

결국 리스트를 만들면서 어휘나 문장 수준으로 분류하지 않고, 삭제된 부분 전체를 하나로 구분(삭제 1건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예를 들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온 내용이 통째로 사라진 경우 이를 하나의 삭제로 보았다.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데 하나의 지배적이고 일관된 동기가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삭제가 미치는 미학적 영향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문장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번역해 의미 단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부분을 하나로 묶어 분류했다. 또한 노래의 제목이나 소설이 열거되어 나오는 부분에서 일부 삭제가 일어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작성된 목록을 기반으로, 번역본 삭제 양상이 작품의 미학적 수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 4. 분석 결과 및 논의

### 4.1 전체적인 삭제 양상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 정리한 결과 소설 전체에서 86군데가 삭제되어 있었다. 전반적인 양상을 대략 파악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목록을 작성한 후, 다시 문장 단위로 대조하며 두 차례 수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생략’과 ‘삭제’의 구분이 쉽지 않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86건을 검토한 결과, 짧게는 1줄 미만으로 차이가 났고, 많게는 15페이지에

걸친 부분이 한꺼번에 잘려나가 있었다. 삭제 분량이 대개는 1페이지 미만이었지만, 1페이지 이상인 곳만 해도 9군데나 되었고 이중 5군데는 5페이지 이상이 삭제되었다.

〈표 3〉 소설 챕터별 삭제 분포

챕터	삭제 건수	5쪽 이상 삭제 부분
1. 잃어버린 서장	9	
2. 바람의 신화	14	7쪽, 6쪽, 15쪽
3. 짧은 교장과 여선생과 풍금	11	
4. 꿈꾸는 벽화	15	
5. 노래의 사슬	16	5쪽
6. 버꾸농악으로 씻기다	21	14쪽

소설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삭제가 1장과 3장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긴 했으나 비교적 고루 분포된 편이었다. 하지만 삭제 분량을 기준으로 보면 2장, 5장, 6장에서 대대적 삭제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삭제 유형을 보면 작품의 주요 소재인 ‘노래’의 제목이나 가사, 중심인물의 말이나 심경, 주변인물 묘사, 과거 회상, 지리적 배경, 결 플롯, 반복적 설명, 두 대화 사이의 연결 문장 등으로 다양하다.

인물 간의 대화나 서술자의 설명이 반복적인 경우, 일부가 생략되거나 압축적으로 기술되었는데 그 와중에 발화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1. 잃어버린 서장>에서 종선 씨가 기억을 더듬으며 아들의 질문에 증언부연하는 장면에서 번역자-편집자는 앞부분을 생략하고, 종선 씨가 분명치 않은 태도로 ‘글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요점을 정리하자면(Récapitulons)’으로 바꿔놓는다.<sup>6)</sup>

번역에서 자주 삭제된 노래 제목과 가사의 경우, 6·25 전후로 불리던 동요, 가요, 등장인물이 창작한 노래, 정치적 성 강한 노래 등이 있는데, 이 중 두 가지 삭제 사례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6) 해당 번역본에서는 번역자-편집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삭제 외에도 텍스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문단 구분 여부, 문단 간 한 줄 공백 추가 혹은 삭제, 화법/서술 방식 변경 등이 가장 빈번한 사례다.

ST. 밀물이 밀려들면 교실 아래 아카시아 그늘 아래 모여 앉아 그 음치에 가까운 방진모 선생의 몇 곡 되지 않은 단골 노래들, 「푸른 하늘 은하수」와 ‘어둠과 괴로워라’의 「해방행진곡」, 그리고 ‘나아가자 동무들아 어깨를 견고……’ 운운의 신식풍 노래들을 지켜온 줄도 모르고 목청껏 따라 부르고, 어쩌다 자유로운 독창 시합 시간이라도 주어지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나 ‘이 강산 낙화유수’ 같은 어른들의 유행가를 다투어 멋들어지게 불러넘기던 음악 시간.

<음영 표시가 번역에서 삭제된 부분>

TT. Quand la marée montait, assis à l'ombre sous l'acacia devant l'école, on chantait à tue-tête les quelques chansons apprises par l'instituteur, qui chantait faux d'ailleurs : *Constellation d'étoiles dans le ciel bleu*, ou la *Marche de la libération*, *Sombre et pénible* ou encore *Marchons tout droit camarade, épaule contre épaule...* C'était des chansons plutôt modernes qu'on serinait inlassablement. Quand nous devions chanter un par un, on entonnait les chants populaires de nos parents.

ST. ‘유자섬아 떠나가라. 큰 산아 무너져라.’ 소리소리 노래를 불러대던 화창한 음악시간은 그해 그때부터 갑자기 딱딱한 행진곡이나 살벌한 혁명가들로 음조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아침은 빛나라……’의 그쪽 ‘애국가’나 ‘장백산 즐기즐기……’의 「XXX장군 노래」 같은 것들은 그래도 그중 곡조가 유연하고 가사도 온건한 편이었다.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이니 ‘총칼을 메고 결전의 길로 다 앞으로 나가자’느니,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같은 선동 조 노래들은 곡조나 가사가 한결같이 가슴이 떨릴 만큼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것뿐이었다.

<음영 표시가 번역에서 삭제된 부분>

TT. *Coule, île Yuja, tombe, grande montagne...*

chantait-on gaiement pendant les cours de chants. Mais, à partir de la guerre, l'ambiance se transforma. La plupart des mélodies étaient dures comme la marche et les paroles terribles, comme ces chants de propagande:

*Nous mourrons en luttant contre nos ennemis*

*Avec nos fusils et nos couteaux*

*Marchons droit devant vers l'ultime bataille*

*Brandis bien fort notre drapeau rouge sous lequel...*

원문과는 달리 노래의 제목과 가사가 별다른 구분 없이 번역된 점도 눈에 띈다. 삭제된 노래 중에서 “장백산 즐기즐기……”의 「XXX장군 노래」의 경우, 『흰옷』이 좌우 이념 대립의 극복을 다루는 만큼 북쪽의 해당 노래를 어느 선가

지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독자에게는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다. 프랑스어권 독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지점이다.

수용 언어-문화권의 독자가 알 수 없는 문화소인 당시의 노래 제목이나 가사가 나열된 부분에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이야기의 빠른 전개를 위해 ‘바뀌말하기식’의 설명이나 부차적 정보 등을 뺀 경우는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 요소나 상호텍스트의 경우 현지화하는 것이 맥락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역자주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물론 번역을 수용하는 언어-문화 독자들에게 특별한 감흥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타자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런데 번역서 *L'Harmonium*에는 각주와 미주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점은 속도감과 가독성을 중시하는 번역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 4.2 소설 미학 왜곡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작품의 미학적 효과를 크게 변형시킬 수밖에 없는 대대적 삭제 부분(2장, 5장, 6장)이다.

### 4.2.1 세대 갈등 해소로 이어지는 서사적 연결 고리 약화

<2. 바람의 신화>에서는 주인공 종선 씨가 아버지 황 노인에게서 물려받은 더덕 밭에 얽힌 사연을 아버지의 말년 행적(전란 전후의 기이한 행동들, 다스릴 수 없는 지독한 바람기로 약재와 독초를 찾아 헤매던 시절)과 연계해 회상하고, 이어서 실패와 회한 가득한 자기 삶(믿을 수 없는 정부 영농정책으로 인한 피해, 매사 헛일이 되고 마는 독자적 영농법, 황노인에게 물려받은 더덕포에 대한 애착)의 내력을 풀어내는 부분이 각기 7페이지, 15페이지 넘게 잘려나갔다. 해당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는 읽는 이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

정호웅(2003: 250-251)은 원작 『흰옷』에서 종선 씨의 대척점에 있는 황 노인에 대한 탐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크게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작품의 완성도 문제까지 거론한다.

정주와 연속을 지향하는 주인공의 농경적 세계관 반대쪽에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딛고 바람을 따라 떠도는, 주변인적 존재인 주인공의 아버지가 자리해 있다. 이 흥미로운 강한 개성의 인물에 대한 탐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 그는 자식 앞에서 다음처럼 상소리를 내지 수도 있는 존재이다. (...) 더 근본적인 것은 그가 세계의 질서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바깥에 존재하는 주변인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농경사회의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언행에 거침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작가는 왜 이 인물을 더 깊이 추구하지 않고 중도에 멈추었을까? 이로 인해 이 작품의 완성도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데, 새삼 아쉽다.

번역자-편집자 역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가정한다 해도, 이러한 주장이 번역의 삭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된다.

아울러 2장에서는 종선 씨와 아들 동우가 대립하는 내용이 6페이지 가량 삭제되었다. 종선 씨는 임시학교 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순수한 상태로 간직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동우는 당시 헌신적이던 젊은 교사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였대도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선언한다. 이어 가난했어도 아름다웠던 자신의 유년을 동정과 구제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그 시절 선생님들의 사상적 성향을 예찬하는 아들을 종선 씨가 못마땅해 하는 내용, 피비린내 나는 이념의 대립과 전란을 겪은 아버지의 상처 깊은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우가 (소설 속 서술자가 종선 씨의 마음을 옹기 표현을 빌리자면) ‘설교조’와 ‘연설조’로 ‘불온한 소리’와 ‘설익은 장광설’을 늘어놓는 내용이 교차하는 부분이 잘려나갔다. 이보다는 삭제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4. 꿈꾸는 벽화>에도 종선 씨의 마음과 생각과는 자주 엇나가는 동우의 ‘연설투’의 ‘역사 타령’이 3페이지 반에 걸쳐 지워졌다.

백지은(2015: 285, 290-293)은 종선 씨 개인의 기억(‘스토리’)은 곧 가족의 기억이며, 그 기억을 통해 지난 시간을 복원하며 공적인 역사(‘히스토리’)에 저항해 ‘역사적 인식을 수정, 보완, 쇄신’하는데, 그 과정에 ‘이념 대립의 극복’과 함께 ‘세대 갈등의 해소’가 중요한 문제로 개입되어 있으며, 삼대에 걸친 삶이 각기 아버지-아들 간의 대립 구도로 전체 서사를 이끌어간다. 위령굿 단계에서 ‘세대 간 화합’으로 새로운 역사인식에 기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물 간 세대 간 대립 구도는 서사의 추진을 위한 설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아들 동우가 미리부터 “이열 교장과 전 선생들의 혼백을 달래기 위해 위령굿을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바”가 밝혀질 때쯤이면, 이 이야기에서 세대 간 화합은 새로운 역사인식이 가져온 결과라기보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전제에 가까웠던 듯하다. 다시 말해, 종선 씨의 개인적인 기억이 새로운 공적 히스토리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상대를 헤아려 화합을 이루어나가려는 참음과 기다림” 또는 “이해와 께안음의 정의”가 먼저 요청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황 노인에 대한 추억과 종선 씨 개인의 회한 많은 삶에 대한 내용, 종선 씨와 동우 사이의 정서적·이념적 대립 부분을 삭제한 것은 그 서사적 연결고리를 약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 4.2.2 공명하지 않는 풍금의 파토스

<5. 노래의 사슬> 마지막 부분에서는 임시분교에서 가르치던 방진모 선생이 고이 간직해온 사연 많은 풍금을 종선 씨 아들 동우가 선생의 청으로 옛 악보를 보며 연주하자, 그 노래에 실린 시들어 죽을 줄 모르는 순정한 꿈에 선생이 괴로워하는 장면이 번역본에서는 5페이지 넘게 삭제되었다. 모진 세월의 풍파에도 변함없이 맑고 고운 풍금 소리로 동요, 서정적 노래들, 자장가, 행진곡, 교가 등의 선율이 이어지는 장면, 연주가 계속될수록 점점 더 격해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끝내 고통스럽게 무너져버린 선생의 모습이 지워진다. 이는 6장에서 종선 씨가 아들 동우와 나눴던 대화를 생각하는 대목에서 그 내용이 요약식으로 서술될 뿐이다. 그 절망을 오롯이 겪어내는 선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의 말을 직접 들려주는 것과, 그 일화에 대한 종선 씨 부자의 이견을 전달하고 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해당 삭제 부분은 다음 6장에

7) 이윤옥(2005:115-121)은 『흰옷』에서 셋김굿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생각들과 망자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사람들'로 방진모 선생과 함께 종선 씨의 아버지인 황 영감을 꼽으며, 두 사람의 대립된 삶을 ‘풍금’이란 상징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방 선생은 풍금을 고이 간직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과거로 인해 오늘이 없는 빈 삶’을 살아온 반면, 황 노인은 생전에 풍금을 위해 생명의 위험까지 불사할 줄 아는 ‘자기 삶의 확실한 증거를 지닌 사람’으로, 풍금이 황 노인에게 ‘사랑으로 채워진 삶



서 그 고통에 풍금까지 부숴버린 방 선생이 씻김굿에 혼주로 참여해 자신의 아픔은 물론 모두의 아픔을 씻어주는 장면과 관계가 있다. 번역본에서는 씻김굿의 해당 장면이 삭제되어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설 『흰옷』에서 풍금은 단순히 등장하는 사물이 아니다. 인물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 못지않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큰 동인이다. 풍금은 종선 씨와 다른 인물들 간의 엮힌 관계에 대해 가려진 기억을 밝혀주는 열쇠이자, 실종된 인물들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단서이다(어린 시절 빼어난 노래 실력 덕에 풍금을 치던 전정옥 선생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추억, 여교사와 풍금을 배로 주변 섬마다 건네주던 아버지 황 노인, 이열 교장과 전 선생의 손에 이끌려 공산군 당부가 주최한 노래경연대회에서 풍금 반주에 맞춰 북쪽 노래를 불렀던 사건, 그 일이 위험에 처한 군수 아들 허 선생을 살리는 묘책이었을지 모른다는 혼란스런 기억 등). 『흰옷』의 프랑스어 번역서 제목을 원제 그대로가 아닌 ‘풍금’(*L'Harmonium*)으로 한 것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열림원 전집 수록본 책(2003)의 뒷표지에 다음과 같이 ‘풍금의 파토스’를 크게 내세운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풍금의 파토스, 그 해한을 위한 신명풀이  
 풍금을 울리지 마라, 황량한 전설의 시대는 위협하다.  
 함부로 울리지 마라, 사랑 잃은 풍금 소리는 질곡이다.  
 이데올로기 격랑 속에서 질곡의 풍금이 있던 자리는 속절없다.  
 어두운 한의 그림자를 어찌지 못한다.  
 그 깊숙한 어둠과 한을 위무하며 함께 아파할 자, 풍금을 울려라.  
 가여운 원혼 대신 아파할 자, 풍금을 울려라.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데올로기적 한 맺힘에서 풀림으로 나아가는 신명스런 말깃풀이.  
 혹은 이청준식 풍금의 파토스.

앞서 언급한, 5페이지가 넘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한 맺힌 정서를 해한의 위령굿으로 함께 풀어 올릴 공명상자를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의 기호’라면, 방 선생에게는 ‘실체가 없는 빈 삶의 기호일 뿐’이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두 사람은 결코 소설의 주변인물일 수 없다. 프랑스어 번역에서는 두 인물에 대한 서사가 상당 부분 지워졌다.

#### 4.2.3 매굿놀이, 버꾸농악, 위령굿의 상징적 의미 약화

<6. 버꾸농악으로 씻기다>에서 이청준 소설 『흰옷』의 미학이 정점에 이른다는 사실에는 평론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정호웅 2003; 이윤옥 2005, 2015; 이수형 2013; 백지은 2015). 그런데 그 핵심이 되는 위령굿 마당의 도입 및 전개 부분이 번역에서는 여러 군데 삭제되었다.

내용 삭제 과정에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정된 부분도 있다. 원작에서는 택시를 타고 위령굿 장소에 도착한 종선 씨가 복잡한 마음에 일부러 예정된 시간을 넘겨 조금 멀리서 택시에서 내린다. 번역에서는 하차하는 장면이 앞뒤 문단과 함께 삭제되었는데,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바로 앞 장면 전환 부분(한 줄 공백으로 표시)에서 택시에서 내렸으리라 독자가 유추할 수 있게 한 문장이 수정되었다. 종선 씨가 택시에 탄 채로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보는 구절이 택시에서 이미 내려 구경꾼 무리 사이에 서 있는 구절로 바뀐 것이다(ST/TT 밑줄 친 부분).

ST. 종선 씨는 이윽고 그 낭자한 풍물굿 소리 속에 굿판을 동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눈에 들어오자 어느새 또 까닭 없이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하고 모아 쥔 손바닥이 자신도 모르게 축축한 땀기에 배어 젖고 있었다.

(...) 종선 씨는 부러 그 절간 입구까지 내쳐 굿판을 올라가 그곳 사천왕문 앞에서 차를 내렸다. 그 종선 씨가 차를 돌려세우고 다시 아래쪽 굿판을 찾아내려갈 때까지도 매구굿 소리는 계속 극성을 떨어대고 있었다. (...) 하지만 종선 씨는 그 굿판의 환상적인 분위기에 어떤 끌림이나 안도감보다 공연히 더 심사가 불안해지고 있었다.

<음영 표시가 번역에서 삭제된 부분>

TT. Dès qu'il se retrouva parmi la foule de spectateurs qui se pressait pour regarder, M. Chôngson commença à avoir le cœur battant et les mains moites. Il n'était pourtant pas véritablement attiré par la ferveur du spectacle. Au contraire, il éprouva une nervosité insurmontable.

따라서 논리적 일관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의 대대적인 삭제 부분에서는 그런 조정이 없는 논리적 비약이 의심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잠시 미뤄두고, 도입부의 비교적 비중 있는

삭제 부분(2페이지 6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1950년 여름날 밤 이데올로기로 양분된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살기와 적개심을 띠며 극성을 떨어대던 날선 쇠소리에 대한 공포스런 기억, 이와 관련해 징과 팽과리 소리 위주의 매구(埋鬼)굿과 부드럽고 울림 깊은 북장구 소리 위주의 버꾸놀이(법고(法鼓)놀이)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번역에서 사라졌다. 그 결과 소리의 차별성과 변화를 통해 역사의 한 시기를 통찰하는 작가의 예술적 해안(정호웅 2003:248-250)이 상당 부분 지워진다. 이청준(1994: 260, 263)이 『서편제』 등의 작품에서 ‘우리 인생사에 대한 총체적 포용과 융합적 이해양식’인 판소리를 통해 ‘아픔을 함께 껴안고 초극해 넘어서는 창조적 생명력의 미학’인 ‘한의 본질’을 표현하려 한 방법을 『흰옷』에서도 다른 예술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차용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흐려지게 된다.

이어서 대단원이라 할 수 있는 셋김굿이 원작에는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번역에서는 여러 군데가 삭제되었다. 우선 위령굿 마당에 풍물꾼으로 참여한 아이들의 흰색 옷과 치장이 갖는 이례적 의미, 제관(신관) 격인 동우의 흰 두루마기 차림(원작 제목 ‘흰옷’의 유래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 사상이나 파벌과 무관하게 셋겨 보낼 모든 원혼들(‘무명씨’ 포함)의 영좌를 마련한 제단 설명 등이 지워졌다.

마지막에는 14페이지 넘는 부분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고인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영혼 맛이 축원을 고하는 과정, 악귀를 쫓는 매구굿의 팽과리 소리에서 망자의 혼령을 맞이해 그 한과 설움을 풀어주는 버꾸놀이로 전환하는 부분, 방 선생이 혼주 역할을 맡아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한풀이와 닛건지기 의식을 통해 망자와 산자의 얽힌 사슬을 풀어주는 장면 등이다. 또한 망자의 혼을 받는 선생의 목소리와 말의 내용이 시간이 갈수록 ‘누구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투명성 같은 것을 띠어’갈 때 작가는 그의 입을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부분도 사라진다.

ST. (...) 하지만 이제 그것을 모른달 수는 없는 일이지. 그 꿈은 순명했으  
되 오래잖아 우리를 묶는 이념의 사슬을 불렀음을. 그래서 당초의 사랑과  
소망을 잃고 길이 서로 다름만을 피 흘려 다투게 되었음을. 급기야는 저  
50년의 참혹스럽고 패륜적인 동족 간의 살육전까지 부르게 되었음을……  
꿈이 노래를 잃으면 제 마음을 묶는 사슬이 되는 법이라. 혁명이 사랑을

잃으면 추하고 가공할 폭력이 되는 법이라. 사랑을 잃은 폭력이 노래를 좋아하면 그 노래 역시도 사슬이 되는 법이라. (...) 망자는 생자의 사슬이 되어 생자들을 묶고, 생자는 망자의 사슬이 되어 망자들을 서로 묶어, (...). (...) 그 헛된 이념과 사상의 사슬, 대립과 미움과 원한과 복수의 사슬, 거짓과 속임수와 미망의 사슬들을…… 누구보다 저 아이들에게서 그걸 끊어 풀어줘야제. 오늘 다시 저 아이들을 묶는 사슬을 만들지 말아야제. 그래서 저 아이들이 자기 제 몫의 세상살일 자유롭고 화창하게 꾸미고 살아가게 해줘야제. (...)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원작에서는 3페이지에 걸쳐 나오는데 위에 인용한 부분은 그 중 핵심만 발췌한 것이다. 이 모든 소망의 노래가 번역에서는 지워진다.

14페이지를 삭제한 결과, 번역에서 셋김굿은 첫 발원을 고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절정으로 건너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종선 씨가 고인들의 환영과 조우하는 장면도 잘려나간 것이다. 아버지 황 노인이 옛날 한때처럼 풍금을 짚어지고 이 교장과 전정옥 선생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 보이고, 풍금에서 흘러나오는 신비스럽고 고운 선율을 아이들이 함께 합창하는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한 단락들이 삭제되었다. 원작에서는 5장의 풍금 얘기와 함께 공명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이다. 번역에서는 느닷없이 풍물 소리, 풍금 소리, 합창 소리의 환청 얘기가 짙막하게 나오고 종선 씨의 독백으로 소설이 마무리된다.

ST. - 그래, 이제는 당신의 혼백도 셋겨 보내드려야제. 당신도 여태 그 몫 쓸 바람기 속을 헤매고 계시는지 모르는 마당에…… 동우 놈 덕에 오늘사 그걸 알겐 됐지만, 이 일은 놈헌티도 대신 시킬 수가 없는 일이니까…… 아, 그래야 좋은 곳든 서로가 제 앞에 점지된 제 몫의 세월을 살아 흘러가게 될 수 있을 거 아닌가 말여!

TT. - C'est ça. Dorénavant, je dois aussi laisser partir votre esprit. Je ne sais si, vous aussi, vous avez avancé pendant tout ce temps-là, dans ce maudit vent. Je m'en aperçois aujourd'hui seulement, grâce à Tongu, mais pour faire ça, même Tongu ne pourrait me remplacer... Ah, c'est comme ça que chacun doit vivre la vie qu'il s'est désignée à lui-même, qu'on le veuille ou non !

여기서 ‘당신(vous)’은 종신 씨의 아버지 황 노인을 지칭한다. 이로써 세대 갈등 해소가 해한의 대미를 장식한다. 프랑스어 번역서를 읽는 독자의 경우 이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앞에서 황 노인의 환영을 언급한 부분이 사라졌고, 2장에서도 황 노인에 대한 서사가 대대적으로 삭제되었기에 바로 연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된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 재번역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이청준 소설 『흰옷』의 프랑스어 번역본 *L'Harmonium*에 나타난 삭제 양상과 그러한 번역자·편집자의 개입이 작품 미학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른 언어-문화권의 문학 작품 번역에서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삭제 전략(문화소 생략, 부차적 정보, 반복적 설명, 배경 묘사, 연결어 등 삭제) 외에도, 작가의 고유한 소설 미학을 훼손(세대 갈등 해소로 이어지는 서사적 연결 고리, 풍금의 파토스, 매굿놀이·버꾸농악·위령곡의 상징적 의미 약화)하는 삭제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이청준 작가는 자기 작품의 프랑스어 번역을 책임편집자인 모뤼스에게 일임하며 번역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번역가의 소관’으로 여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작가의 동의만 있으면 모든 번역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저작권 차원에서는 답이 자명해보인다. 하지만 작품 수용 측면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는 작품 해석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가의 의도를 중심에 두었지만, 현대의 수용미학에서는 독자의 역할 또한 중요시 여겨진다.

에코(Eco 1989: 61-83; 남윤지 2016: 99-100 재인용)는 모든 텍스트는 ‘말해진 것’과 함께 ‘말해지지 않은 것’으로 짜여진 조직, 즉 ‘게으른 (또는 경제적) 장치’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백’과 ‘틈’을 메우려는 독자의 적극적·의식적 협력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저자는 자신이 상상한 대로 텍스트의 의미 생성(해석 작업)에 협력할 수 있는 ‘모델 독자(Lecteur Modèle)’를 예상한다. 여기서 ‘모델 독자’란 가상의 독자 개념이 아니라, 텍스트의 잠재적 내용이 발현될 수 있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텍스트적으로 구성해놓은 ‘성

공 또는 행복의 조건 전체’, ‘최적의 조건(*felicity conditions*)’에 해당한다. 이와 짝을 이루는 ‘모델 저자’는 텍스트 내에서 해석적 가설로 세우는 작가이다. 이러한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가 실제 작가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다. 또한, 에코(Eco 1994: 29-35; 남윤지 2016: 100 재인용)는 실용문서와 같은 ‘닫힌 텍스트’는 단 하나의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문학작품과 같은 ‘열린 텍스트’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맥락에 맞게 코드화된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intentio auctoris*), 텍스트의 의도(*intentio operis*), 독자의 의도(*intentio lectoris*)를 탐색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세 가지 의도에 모순이 생길 때는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번역에서 대대적인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텍스트적으로 구성된 모델독자와 텍스트의 의도가 변형을 겪게 되며, 그 결과 작품 해석의 가능성 및 수용미학도 변형될 수밖에 없다.

대대적인 삭제로 소설미학이 왜곡되었다고 해서, 해당 번역을 무조건 비윤리적이라 비판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한국의 해외문학 번역 근대사를 보면 초역, 축역, 경계역을 통해 삭제가 흔하게 이뤄진 바 있다. 오늘날의 번역 규범으로는 용인되기 힘든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프랑스의 한국문학 이입사적 측면으로도 또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작품의 번역, 편집, 출간 시점(2001)에서는 한국문학 수용 여건이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이는 한국문학작품의 재번역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낮선 것의 시련’, 즉 낯선 타자를 맞이하는 이가 겪는 시련과 낯선 타자가 다른 언어-문화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시련(Berman 1984)<sup>9)</sup>은 사회·

8) 물론 일정 시기에 특정 언어-문화권에서 지배적인 번역 경향이 있을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경쟁적인 규범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통시적 연구와 함께 출판사별, 번역자별, 편집자별로 번역 양상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9) 베르만(Berman)은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원전은 1999:29, 번역서는 2011:38)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프랑스에서는 이국 문학 작품의 번역이 ‘낯섦’을 지우는 방식으로 행해져왔음을 고찰하며, 그 지배적 형태를 ‘자민중심적 번역(*traduction ethnocentrique*)’이라 규정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이퍼텍스트적 번역(*traduction hypertextuelle*)’의 왜곡 현상을

문화·역사적 맥락이 바뀌면 변할 수 있다. 루-포카르(Roux-Faucard 2008: 133-157, 254-257)는 문학 서사작품이 시대에 따라 재번역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전의 작품이 하나의 해석만 가능한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여러 겹의 의미로 다양한 해석을 품고 있는 복수성 혹은 다원성(*la pluralit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보다 실질적으로는 재번역의 원인을 번역 텍스트의 ‘나이 듦’에서 찾는다. 즉, 원작에 대한 번역자의 불충분한 이해, 수용 언어의 변화, 원전 문화에 대한 수용 언어-문화권 독자의 배경지식 변화, 시대에 따른 번역방식(전략)의 변천 등의 이유로 재번역이 되며, 작품에 따라 재번역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작품이 같은 이유로 재번역 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문학의 프랑스어 번역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변화를 계속해오고 있다(오정숙 2004; 김정연 2015). 1970년대 악트 쉬드 출판사가 프랑스의 한국문학 수용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하였고 1990년대까지 이를 선도해왔다면, 2010년대에는 더욱더 다양하고 많은 현지 출판사가 우리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 독자의 한국문학에 대한 기대지평도 크게 확장되었다. 그사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곧 이어 열린 파리 가을 페스티벌(Festival d'Automne à Paris)에 한국이 초청국이 되어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굿, 종묘제례, 사물놀이, 판소리 등)이 공연 형식으로 소개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오정숙 2006: 548-549). 이후 양국 교류가 더 활발히 이어졌고, 한불 수교 120주년(2006)과 130주년(2016)을 기념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기회가 풍성했다. 또한 한류와 함께 문화 저변도 확대되어 수용 맥락이 오

분석하며 비판하였다. 베르만에 따르면, ‘자민족중심적’이란 ‘모든 것을 자국의 문화, 규범, 가치로 환원시키고, 이러한 범주의 외부에 위치한 모든 것(낯선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병합하고 조정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자국 문화의 풍요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청준 소설 『흰옷』의 프랑스어 번역 *L'Harmonium*에 나타난 삭제만 제한적으로 다루었기에 그 왜곡 양상만으로 해당 번역에 대해 자민족 중심적 번역을 논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베르만이 분류한 왜곡의 경향들 13가지에는 ‘삭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자민족중심적 번역에 대한 성찰은 필연적으로 번역윤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는 현재 단계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추후 심화 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늘날에는 크게 변화했다. 재번역에 우호적인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한국문학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대표적 국내 기관들은 재번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이 보다 성숙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이청준 문학이 어떻게 수용되었나에 대한 번역비평적 연구의 일부분이기에, 프랑스어로 번역된 이청준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비슷한 삭제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트 쉬드가 출간한 한국문학 총서의 번역 경향 분석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한국문학이 프랑스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나 전반적인 지평도를 그리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남혁 (2015) 『파라텍스트 이청준』, 서울: 케포이북스.  
 김병철 (1980)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김옥동 (2010) 『번역과 한국의 근대』, 서울: 소명출판.  
 김정연 (2015) ‘La traduction d’œuvres littéraires coréennes en français : son bilan à partir des années 2000 et ses perspectives’, 『통번역학연구』 19(4): 135-195.  
 남윤지 (2016) 「유명하는 텍스트의 안과 밖: 상호텍스트성 번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번역학연구』 17(5): 91-125.  
 박선영 (2015. 3. 6) 「소설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초고를 읽는다면」, 『한국일보』, 2015년 4월 23일 검색.  
 박윤철 (2008) 「자막번역의 생략과 삭제」, 『번역학연구』 9(4): 171-194.  
 백지은 (2015) 「정형화된 (히)스토리 - 다른 역사성을 위하여」, 이청준, 『흰옷』 (이청준 전집 26), 서울: 문학과지성사, 278-297.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파주: 창비.  
 오정숙 (2004) 「프랑스의 한국문학」, 유럽문화정보센터,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

- 역 - 과거, 현재, 미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45-78.
- 오정숙 (2006) 「프랑스에서 한국의 문화이미지, 문화브랜드 - Le Monde에 나타난 한국관련 기사의 문화기호학적 분석」, 『프랑스학연구』, 37: 525-571.
- 윤성우, 이향 옮김 (2009)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독일 낭만주의 문화와 번역』, 서울: 철학과현실.
- 윤성우, 이향 옮김 (2011)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 서울: 철학과현실사.
- 이수형 (2013) 『이청준과 교환의 서사 - 배신과 복수의 정신경제학』, 서울: 역락.
- 이영훈 (2011) 「생텍쥐페리의 『남방우편기Courrier Sud』 번역 품질 평가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5: 281-346.
- 이윤옥 (2005) 『비상학, 부활하는 새, 다시 태어나는 말 - 이청준 소설읽기』, 서울: 문이당.
- 이윤옥 (2015) 「텍스트의 변모와 상호 관계」, 이청준, 『흰옷』(이청준 전집 26), 서울: 문학과지성사, 298-305.
- 이지민 (2018) 「『채식주의자』 영역본 The Vegetarian의 삭제 전략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79-207.
- 이청준 (1994) 「아름속에 숙성된 우리 정서의 미덕」, 이청준, 『흰옷』, 서울: 열림원, 255-270.
- 전성기 옮김 (2001) 『번역의 오늘: 해석 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정나영 (2013) 「TV 뉴스 번역에서의 삭제 양상 분석 -KBS 월드뉴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1): 301-329.
- 정나영 (2017) 「TV 뉴스 영한 트랜스크리에이션 전략: 첨가와 삭제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4): 97-131.
- 정호웅 (2003) 「셋김굿의 새로운 형식 - 이청준의 「흰옷」」, 이청준, 『흰옷』(이청준 문학전집 11), 서울: 열림원, 244-254.
- Berman, Antoine (1984) *L'Épreuve de l'étranger :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Paris: Gallimard.
- Berman, Antoine (1999)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Paris: Editions du Seuil.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

- Eco, Umberto (1989) *Lector in fabula: le rôle du lecteur ou la Coopération interprétative dans les textes narratifs*, traduit de l'italien par Myriem Bouzaher,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 Eco, Umberto (1994) *Les Limites de l'interprétation*, traduit de l'italien par Myriem Bouzaher,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 Israël, Fortunato (1991) 'Traduction littéraire: l'appropriation du texte', in Marianne Lederer et Fortunato Israël (eds) *La Liberté en traduction*, Paris: Didier Erudition, 17-41.
- Lederer, Marianne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 -Le modèle interprétatif*, Paris: Hachette.
- Maurus, Patrick (2011) *Tombeau pour Yi Ch'öngjun, Tan'gun*, Paris: L'Harmattan, 11-16.
- Pym, Anthony (2016) *Translation Solutions for Many Languages: Histories of a flawed dream*, London/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 Roux-Faucard, Geneviève (2008) *Poétique du récit traduit*, Caen: Lettres modernes Minard.
- Toury, Gideon (2012)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 and beyond*, Revised Edi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분석 작품>
- 이청준 (2015) 『흰옷』 (이청준 전집 26), 서울: 문학과지성사.
- Yi Ch'öngjun (2001) *L'Harmonium* (Kang Gobae, Son Mi-Kyung, Patrick Maurus, trad.), Arles: Actes Sud.

[Abstract]

**The aesthetic impact of deletions from the French translation,  
*L'Harmonium*, of Yi Ch' Ņgjun's novel, *H in'ot***

Nam, Yun-J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aesthetic effect of the deletions from the French translation, *L'Harmonium* (2001), of Yi Ch' Ņgjun's novel, *H in'ot* (1994). When translating, it is often necessary to modify the explicit/implicit ratio which can vary according to the languages involved. In cases of implicitation, some elements disappear but equivalence presents identity of meaning in different forms. Such cases correspond to ellipsis. Other cases are considered as deletion.

The translators and editors of *L'Harmonium* have removed opaque cultural elements, repetitive explanations, descriptions of landscape or secondary characters, etc. for the French readership. While their intervention has the effect of making the reading more fluid, some deletions affect the aesthetic dimension of the work. In chapter 2, the translation omitted the memory of the protagonist and narrator, Chongsŏn, of his father and the story of his own failures. This weakens one of the narrative axes of rewriting history through individual narratives, in this case the generational conflict against the backdrop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prevailing since the Korean War. In the last chapter, two major parts are removed: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wo opposing music styles, *moegunnori* and *pŏgu nong-ak*, respectively symbolizing threatening hostility and peaceful symbiosis, and the detailed movements of the shamanic ceremony *ssikkimgut* (*wiryŏnggut*) intended not only to appease the souls of the dead but also to heal the wounds of the survivors to convey the

messag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retranslate the novel.

▶ Keywords: ellipsis, deletion, aesthetic, distortion, retranslation

▶ 주제어: 생략, 삭제, 미학, 왜곡, 재번역

남윤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강사

bluella@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미디어번역,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9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9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19일